"All the News That's Fit to Print"

The Citizen Times

AEMAETH VERITAS

Copyright @ 2008 AEMEATH VERITAS

The Copy Chief SEO Hwan

주간 신문 2007. 11. 24. 토 2007. 11. 24. 창간

길고 긴 잠수 끝에 등장한 D.Sacha Sisley !!

↑ D.Sacha Sisley의 초상화

시슬리가의 대표 문장, 사쿠라 그룹 회장, 시민국 건축계의 달인이라는 극찬의 소리를 들으며, 시민국 생활을 했다가, 잠시 동안 접었던, D.Sacha Sisley가, 최근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D.Sacha Sisley는 "뇌가 녹은 일상"이었다면서, 그동안 잠적한 동안 일어난 일을 시초로 입을 열였다.

-> 자세한 기사 2면에서 계속...

- 오늘의 기사-

1. D.Sacha Sisley가 시민국에 돌아오다!!
2. 무너지는 화안가, 이대론 도대체 뭐여?
3. Coolcd 007이 합스부르크가문원?
   자기로 몰랐던, 비밀의 사실!!
4. 신문을 창간하면서

D.Sacha Sisley가 시민국에 돌아오다.

-> 그 동안의 삶은 "뇌가 녹은 일상"이었다고 밝혀
-> 원래 시민국에서 맡은 역할을 하지 않고, 임시동안 "여행자"모드로 활동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오랫동안 잠적해왔던 시슬리 가 수장인, D.Sacha Sisley가 다시 돌아왔다.

11월 20일 오후 10시 30분 경, NT 뉴욕 사옥에서 D.Sacha Sisley가 등장했다.
당시의 있었던 일을 한번 여기서 밝히는 바이다.

↑당시 대화한 모습

-> D.Sacha Sisley는, "뇌가 녹은 일상이었다"라고 토로해

그가 돌아오면서, 일단 DM.Thoth Habs.는 그가 잠시 잠적 할동안, 과연 시민국은 얼마나 변했는지, 그동안의 역사를 설명했다.

그리고 그도 잠적할 동안, 일어났던 일을 설명했다. 그가 맨 먼저 내온 말은 바로 "뇌가 녹은 일상이었다."라고 밝혔다.

그 일상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다. 우선 그는 현재 외고(외국어 고등학교, 이하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AP(미국에서 유명한 시험, 우리나라로 치면 대입수능 정도 보면 된다.)시험 성적이니, 다른 시험 성적 이야기를 하며, 대화의 실마리를 이어갔다.
물론, 이날, Munjong Hwa.n과 Seo Hwa.n도 참여권이 있었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었으나, 사실적으로 대화는 DM.Thoth Habs.과 D.Sacha Sisley, 이 둘만의 대화로 이어지고 말았다.

-> 실질적으로 4명이 있어야 했지만, 사실상으론 대부분 사람들이 참가해버려 난장판이 되었다.

과연 D.Sacha Sisley의 인기는 대단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 봐서 구경하기 위해 모여든 것일까? 이내 다른 회원들도 슬슬 이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서 대화는 어느 정도로 무르익기 시작했다.

그리고 D.Sacha Sisley가 없었을 적에, 생긴 마을인 "평화마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다. 평화마을에 대해서 가이드를 할 사람은, DP.RaffineCamps.가 수고를 해주셨다.

이날, D.Sacha Sisley님의 등장 탓인지, 총 8명이 접속했다.

한편, D.Sacha Sisley가 활동할 무렵에, 시민국에 8명이 접속하면 "파티"를 열였다고 하니, 참으로 인력난이 지금보다도 더 심했던 시민국의 과거를 보여주었다.

이날 D.Sacha Sisley은 그가 활동했을 때보

다 배 이상으로 변해버린 시민국을 보면서, 많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 복귀보단 "여행자"로 있겠다고 밝혀

D.Sacha Sisley는, 지금 당장 제자리로 복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너무나도 변해버린 이 나라에 적응을 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런 만큼 일단 그가 복귀해서 제대로된 업무를 처리할려면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도 내년이면 대입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략 그가 복귀하는 건 아마도 대학가고 나서의 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D.Sacha Sisley의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한다.

D.Sacha Sisley는 과거에 시민국에 원로들 중 하나에 속한 만큼, 그도 여태까지 잘 활동을 해왔다.

이제 D.Sacha Sisley의 앞으로 어떻게 활동한 것인가는 순순히 D.Sacha Sisley에게 달려있다.

앞으로의 그의 활동을 기대해본다.

Seo Hwa.n 기자

광고

무너지는 화안가, 이대론 대체 뭐여??

-> 대략 수장 처리 문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 더 이상 가면 화안가 박살나는 것은 기본이라고...

드디어 슬슬 화안가에게도 위기는 찾아온 것인가? 시민국의 인지도가 높은 가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세워졌고, 동양식을 고집하고, 조만간 자유성 연합의 가입이 될 것으로 보이던 화안가에 결국 위기는 찾아오고야 말았다.

->일의 시작은 화안마을부터 시작했다.
화안마을은, 구 평안시장인 Geumgok pro.가 시장직에 물러남에 따라, 새로운 시장인 Chungmok A Hwa.n이 취임하면서 일은 시작되었다.

당시 Chungmok A Hwa.n는, 평안시를 옛날과 지금이 현존하는 평안시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결국 몇몇 필지를 합쳐 "임대형"으로 하는 한옥마을을 계획했다.

그가 평안시장자리에 오르면서 그가 소속된 화안가의 당시 수장이던 Sejong Hwa.n은 강제로 평안 한옥마을 중 하나를 화안 마을로 명칭을 바꾸고. 결국 평안시 한옥마을 공사는 화안가의 주최아래 진행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화안 마을,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 필지 하나 미납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사용해서 소송이 걸려온 상황

바로 화안마을의 4필지 중 1 필지가 미납되면서 이 위기는 시작되었다.

현, 평화마을 주지사인 DM.Korail Habs.는 필지 미납에 대해서 알린 바가 있었다.

하지만 화안가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필지를 사용해왔고, 결국 여러 번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도출되지 않자, 결국 주지사는 필지에 방벽을 쳐, 무단 사용을 막았다.

↑ DM.Korail Habs.는, 토지 미납된 저 필지를 저렇게 압류를 했다.(자료제공 : JBC)

이것이 시작이었다. 그리고 Sejong Hwa.n은 뉴자유빌에 "**철도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이런 불법 철도 시설은 결국 건설 교통부 장관이던 DM.Korail Habs.와도 마찰을 빚게 되었다.

이로 인해, Sejong Hwa.n과 DM. korail Habs.의 관계는 완전히 나빠지게 되었다.

더군더나 화안가 수장이 Chung mok A

Hwa.n과 Seo Hwa.n이 공동 수장형태로 변하면서, 결국 화안 마을은 “화안읍성”으로 변한다.

그러나 이때, 무상으로 DM.Korail Habs.에게 기증 받은 “광화문”도 철거하게 되면서, DM.Korail Habs.는 화안가에게 반감을 갖기 시작했다.

->개막장 Sejong Hwa.n은, 화안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해...
결국 이런 막장운영을 한 Sejong Hwa.n는 화안 가문원 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사유로, 결국 화안가에서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되었다.

-> 일단, 큰불은 잡았지만, 아직도 수습할려면 힘들어,

이런 Sejong Hwa.n의 개막장 화안가 운영으로 인하여 결국 화안가는 오히려 큰 피해만 입었다.

즉시 수장이 공동 수장으로 변경되면서, 큰불은 건진 상태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습할려면 오랫동안 걸릴 것이고, 둘이서 하는 것도 벅찰 정도로 변모할 것이다.

시민국에서 “동양식 가문”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기대를 얻은 화안가는 이렇게 지금 사정이 나빠졌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화안가에 큰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Seo Hwa.n 기자

광고

광고

Coolcd 007이 합스부르크가 소속이라고?

-> 2004년에 가입해놓고 정작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회원인 Coolcd 007.
->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2004년 시민국이 정식으로 세워지던 해에 활동하기 시작한, 그는 최근에 다시 접속하기 시작하면서, 그를 우리는 "새티즌"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2004년에 가입을 했던 것을 보면, 그는 2004년이라는 사람으로, 과거에서 온 자라고 하며 대해왔으나, 최근에 밝혀진 합스부르크가 족보를 보고, 황당하기 시작했다. 바로 Coolcd 007는 합스부르크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번 기사에 그는 대체 누구인지 제대로 밝혀보고자 한다.

->그의 시작은 2004년 어느날...
그는 2004년 어느날에 가입해서 몇 달가량을 생활하다가 시민국을 접었다.
하지만 2007년 어느날에 다시 그는 접속을 했다. 2004년에 가입해놓고, 정작 시민국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어서, 새티즌 기금을 받을 수 없냐라면서...

대부분은 이 사람이 합스부르크가에 속한 사람이 아닌 "단순 새티즌"으로 생각했다.

화안가에 끌어오던 Seo Hwa.n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다.

"사실상, 그가 합스부르크가 가문원이라는 사실 조차를 몰랐다. 심지언 자기도 그 가문에 가입했다는 사실 조차 모른 것 같다."

광고

자신마저 합스부르크가에 가입되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으니... 남들은 알 리가 있는가?

->그의 형 "흥안운수"
이번에 시민국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의 형인 "흥안운수"을 데리고 왔다.
하지만 "흥안운수"는 시민국 생활이 썩 좋지는 않은 듯 싶다.

우선 형보다 일찍이 활동을 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

->화안 교과서 인턴 사원으로 활동시작
그가 합스부르크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직업이 없다.

물론 후속대책으로 NT 입사 등의 이런 대책이 나올 것 같지만, 아무래도 당분간은 올해 처음 접속했을 때 계약된 "화안교과서 인턴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턴직]
임시 동안 일해보고, 업주나 직원이나 맘에 들면 채용하고, 둘 다 마음에 안맞으면 월급 주고 돌려보내는 제도. 시민국에선 화안교과서가 시작되었다.

->그는 12월 10일 이후 접속이 가능하다고 밝혀...

그도 역시나 10대 청소년에 속하기 때문에 기말고사를 잘 봐야 하는 성적 압박이 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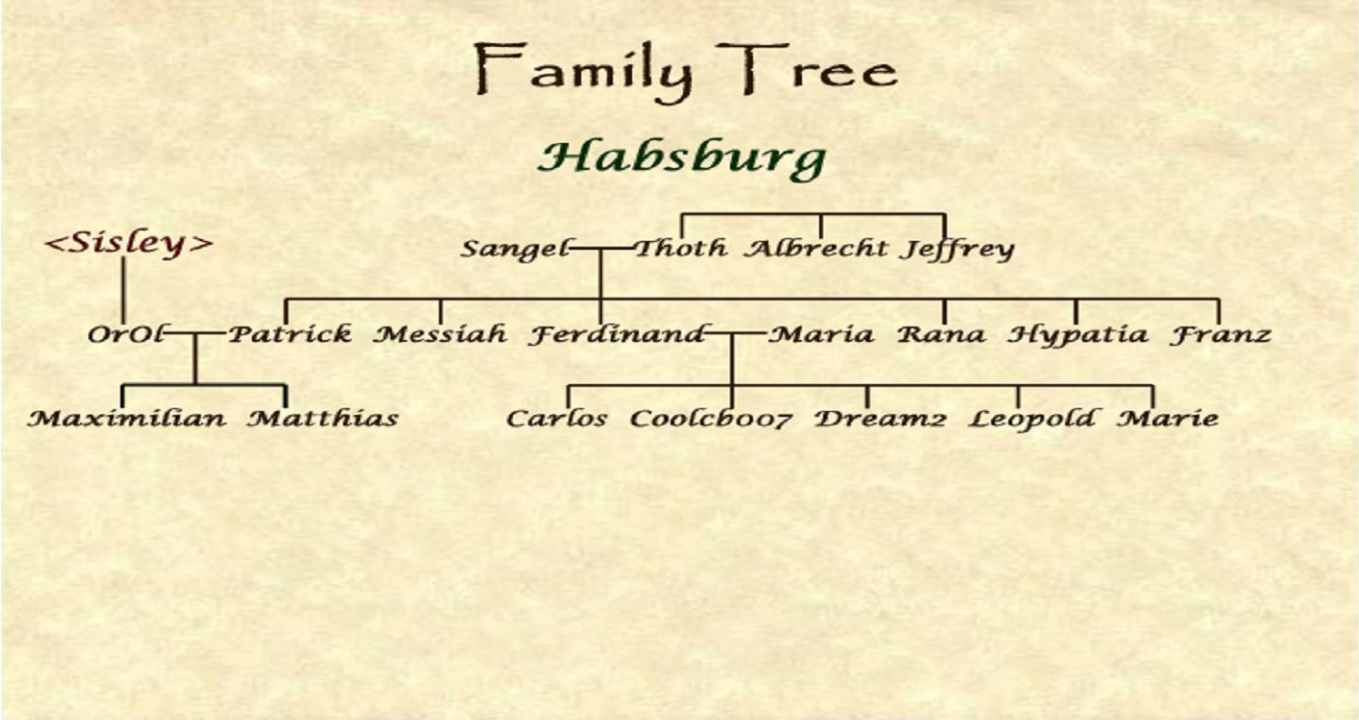
것이다. 이로 인해서 그도 접속을 많이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2004년에 시민국을 가입한 그는, 샤사님과 토트님을 동시에 만나는 행운을 얻게되었다. 그리고 최근접속하면서 "2004년 사람"이라며 많은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그도 시민국의 대표 가문중 하나인 합스부르크가 가문원이라는 사실에, 뭐 충격을 헤아릴 수느 없을 것이다.

어느덧, 그에게도 이미 많은 것이 변해버린 시민국 생활에도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 말이다.

Seo Hwa.n 기자



↑ 이번에 Matthias(마티아스, 전 Univer Hwa.n)가 입단하면서, 변경된 합스부르크가 족보, 카를로스님과 레오폴드님 사이에 Coolcb007가 번 듯이 있다.
지금은 CB ToT라는 이름을 잠시 동안 고쳤고, 대략 그가 활동을 시작하면, 합스부루크 이름을 달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 제공 : 합스부르크가)

NT CORE.

광고

신문을 창간하면서..... 서 화안 편집장

"안녕하세요?"라는 말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이 창간사를 내면서 오히려 편집장이 궁금증만 유발하게 되니, 뭐, 속도 제대로 뒤집어 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제가 이 NT 계열사에 속한 신문사 편집장 겸 회장직에 오른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대략 8월쯤인가 9월쯤부터 토트님이 수능을 마치고, 슬슬 시민국 생활을 시작할 것에 대비해 이런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 같더군요.

뭐 어쩔 수 없이 참여한 것도 아니고, "이제 나도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면서 기뻐할 무렵이었죠.

하지만, 제가 신문 만들어 본 경력이라곤 JBC에서 다다월즈 카페에다가 기사를 써본 경력이 전부입니다.

아에 신문까지 만든다는 생각은 꿈조차 꾸질 못했던 부분이죠. 더군더나 가족신문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놈한테 한글 2007 때려가며 신문을 만들라는 것을 보면, 저도 참 할 말을 잃습니다.

한글 2007이란 놈도 알고 보면 꽤나 웃깁니다.

문서 작성, 신문 작성, 책 작성 등등 MS워드는 오히려 **"문서 작성"**에 가깝지만, 한글은 저 마냥 **"다목적"**프로그램으로 가버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글 2007"**이 **"DTP 프로그램"**이 아니냐며, 의문을 안겨 줄 정도였답니다.

[DTP프로그램]
전자출판 프로그램으로, 컴퓨터로 책을 쓰던지, 신문을 만드는 등의 이런 부분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쿽 익스프레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하나. 우리나라 사람은 "한글 2007"가지고도 별 짓을 다합니다.

제가 흔글이라는 프로그램을 접했을 때는 아마 흔글 97이 정부 표준용으로 승인 받아서, 대략 한컴사가 눈물을 흘릴 때 얘기였으니...

하지만 저도 흔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우다 보니, 다단 하는 것조차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여러모로 인터넷을 뒤져가며, "다단"기반의 이 신문을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흔글은 참말로 무서운 프로그램입니다. 쓰시는 여러분들도 조심해서 사용하셨으면 하는 군요.

어느덧 조금만 있으면 올해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저도 내년이면 수능을 봐야 하는 토트님의 입장이 되죠.

물론 그동안은 저도 잠시 동안만이라도 시민국을 떠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많은 대책을 내놓았으니, 그리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가보도록 하죠. 이 신문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나오는 신문**입니다.

왜 아침 일찍 안 나오고 밤에 나오냐라고 하면 묻지는 마세요. 현재 소속 기자가 한명도 없어서 **"원맨쇼"**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국에도 **"인력부족 현상"**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겠지만요.

그리고 매일 신문 내다간, 오히려 제가 죽기 때문에, 그냥 주간 형태로 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시민국 소식상 2주

에 한번씩 밖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시민국에도 소식거리가 별로 많지 않고,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2주에 한번씩 5일제를 시작하니, 아무래도 토트님에게 물어봐서 2주에 한번 씩 내볼까라고 생각을 해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신문은 기존 다른 신문사들이 도전했던 "신문식 양식"을 시도하는 신문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문사들도 주간식으로 해서 내놓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번번히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우리 신문사는 그런 번번한 실패가 없길 바라고 있습니다. 단지 이 인력난을 어떻게 하면 해결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제 신문처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에, 일단 흔글을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초판이 약간 허접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쨋등 여러분들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문사는 광고 신청도 받습니다.

사진 규격은 아무거나 해도 상관 없습니다.(단, 포토샵 확장자인 PSD는 흔글에서 실행이 안 되는 관계로 제외)

어차피, 단순히 불러와서 그렇게 진행하는 방식이니, 그렇게 큰 걱정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량난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고에 대해선 맨 뒤에 있는 전면 광고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참으로 이렇고 저렇고 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창간사였습니다.

저도 사실상 딱딱한 창간사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따끔식 시간 내서 **여러분의 사설이나 칼럼도 얼마든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설이나 칼럼을 자주 보면 논술 시험 대비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충 논술이란 놈은 신문이나 책 같은 것을 많이 읽어야 그만큼 내용이 수준 높거든요?

어쨌든 그런 만큼 여러분의 많은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그냥 쓰잘 데기 없고. 편집장의 어깨가 아프다는 내용의 창간사를 마칩니다.

편집자 겸 신문사 회장
서 화안 올림

THE CITIZEN TIMES

2007. 11. 24일 자 주간신문
창간일 : 2007년 11월 24일
편집장 : 서 화안

AMEATH VERITAS

우리 신문사는 시민 연방 공화국 헌법에 표기된 내용에 전적으로 준수합니다.

AMEATH VERITAS

- 광고 모집 -

우리 신문사는 시민국에 "알권리"를 선포할 신문사로, 우리 시민국에 많은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창간을 했습니다.
물론 NT 계열사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문사는 NT에게 지원금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신문이란 놈은 광고로 먹고 사는데, 왜 우리는 광고로 먹고 살 수 없어야 하는 겁니까?
시민국 모든 시민들이 이 신문 하나를 손에 넣을 가능성은 98%입니다.
하지만 시민국민만 이 신문을 보는 것이 아닌 다른 시민국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이 신문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신문 광고에 끌리십니까?
그렇다면 광고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광고는 BPN과 달리 확장자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포토샵 파일인 PSD와 같은 "전용프로그램"전용 확장자는 흔글의 특성상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확장자를 제외한 나머지(BMP, JPG, PNG, GIF, TIF 등등) 어쨌든 흔글이 읽을 수 있는 모든 확장자의 파일 모두 지원됩니다.

광고료는 월 단위로 계산되며, 광고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뒷면 또는 중간마다 있는 전면 광고 : 월 20만 다니
신문 사이사이 끼는 반절크기 광고 : 월 12만 다니
다단 한면에만 조금만 하게 끼는 미니 광고 : 월 5만 다니

이렇게 되며, 또한, 저희 신문사는 원한다면 2면 전면 광고도 해드립니다.

계좌는 평화 주택 금고 본사 계좌 (9300B004)로 보내주십시오.
물론 보낸 후에, 광고 사진 파일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기존 시민국의 신문과 다른 신문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우리 신문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MEATH VERITAS 회장 겸 편집장 서 화안 올림